

공동체 소식



사순 제2주일
하느님,
사랑하시는 아드님을 따르라고 명하셨으니
하느님의 말씀으로 저희 믿음을 복돋아 주시고 영혼의 눈을 맑게 하시어
저희가 하느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기뻐하게 하소서.

■ 사순시기 안내

- 사순시기의 의미 : 재의 수요일부터 40일 동안 참회와 극기의 생활로 그리스도의 수난과 죽음에 참여하여,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이루는 만남을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 사순시기 전례와 기도 : 주일미사 중 '대영광송'을 바치지 않으며, '신앙의 신비어'는 '나'양식으로 바칩니다. 또한 자주 '십자가의 길' 기도를 바칩니다.
- 공동 십자가의 길 기도 : 사순시기 동안 주일미사 40분 전에 시작합니다.

■ 2018 사순시기 Rice Bowl 운동

- 안내 : 사순시기 동안 Rice Bowl 기도(미국 주교회의, 까리따스 주관)를 실천합니다.
- 방법 : 사순시기 동안 절제나 극기의 수행을 한 가지 정하고 매일 실천합니다. 그런 다음 매일 묵주기도 1단(해당되는 날의 기도)을 바치고, Rice Bowl 저금통에 1달러를 저금합니다. 모든 사람이 빠짐없이 개별적으로 실천합니다.
- 봉헌 : 주님부활 대축일 본날 교중미사 중.

■ 첫토요일 성모신심 미사

- 미사: 3/3(토) 오전10:00, 묵주기도와 함께하는 미사.

■ 맨해튼 공동체 미사

- 미사 : 3/10(토) 오전 11:30

■ 본당 부활 합동판공 고해성사

- 집전시간 : 3/16(금) 저녁시간
- 초청사제 : 오마하 오세완 바오로 신부님

■ 사순 제5주일, 사순 특강

- 미사 : 3/18(주일) 11:00, 미사 중.
- 주례 : 오클라호마 한인성당 박세훈 루이몽플 신부님

■ 전례 성가

| | 시 작 | 예 목 | 성 체 | 파 견 |
|------------|-----|-----|-----|-----|
| 금 주 (2/25) | 115 | 212 | 180 | 119 |
| 차 주 (3/4) | 117 | 216 | 166 | 122 |

■ 전례 봉사자 및 복사

| | 해설자 | 제1독서 | 시종 복사 |
|------------|---------|-----------|----------|
| | | 제2독서 | 항 복사 |
| 금 주 (2/25) | 박태주 로마노 | 전용진 로렌스 | 문예나 요안나 |
| | | 조진환 베드로 | 문호진 안토니오 |
| 차 주 (3/4) | 김명은 안젤라 | 김병철 베네딕도 | 김정원 안젤라 |
| | | 김경희스콜라스티카 | 고평원프란치스코 |

■ 애찬 봉사자

| | |
|-----|--------------------|
| 금 주 | 백문주, 최은미, 김진미, 윤지선 |
| 차 주 | 장보혜, 장유정, 김수연 |

■ 헌금 봉사자

| | |
|-----|-------------------|
| 금 주 | 강영진 라파엘, 강승석 도미니코 |
| 차 주 | 김대연 요셉, 전용진 라우렌시오 |

■ 우리들의 정성

| | 영성체 | 헌금 | 교무금 |
|----------|-----|--------|--------|
| 2/18주일 | 35명 | 202 달러 | 500 달러 |
| (총 2 세대) | | | |

+미사시간
주 일:11:00 AM
화요일: 7:30 PM
수요일: 7:30 PM
목요일:10:00 AM(교육관)

+고해성사
매 미사 30분전
+예비자교리
주일 10:00 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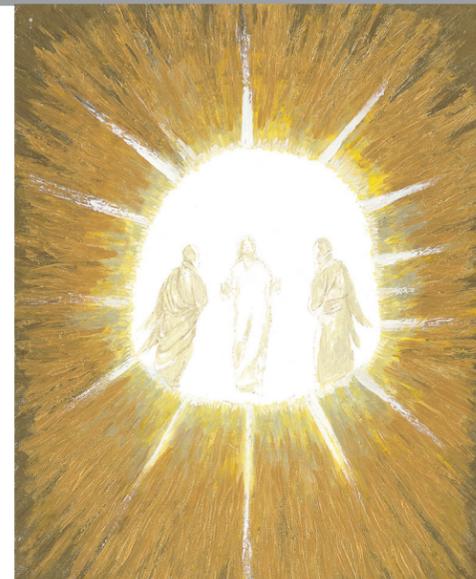
천주교 캔사스 한인성당

Korean Catholic Church in Kansas City
9130 Pflumm Rd. Lenexa, KS 66215
(913)563-7896 www.kckcatholic.org
나자렛 교육관: 8901 Haskins St. Lenexa, KS 66215

주임신부 홍진 베드로
M: 913.912.2574
hongjhin@daum.net

회장 이우석 프란치스코
M: 816.616.0033

재무 김병철 베네딕도
M: 913.710.0770



★오늘의 전례

오늘은 사순 제2주일입니다. 좋으신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죄인들에게 외아드님을 아낌없이 내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힘을 얻어, 모든 일에서 외아드님의 발자취를 따르고 외아드님의 모습으로 변하여, 영광의 빛을 누리도록 하시는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림 묵상
'거룩한 변모'

그분의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그분의 옷은 빛처럼 하얘졌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하늘에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음성이 들립니다. 예수님께서 수난에 앞서 보여주신 거룩한 변모는, 더욱 큰 영적 갈망의 기쁨을 간직하며 사순 시기를 지내라는 초대입니다.
(그림 정미연 소화테레사)

제 1 독서 :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22,1-2.9.10-13.15-18

<우리 성조 아브라함의 제사.>

화답송 :



◎ 나는 주님 앞에서 걸어가리라. 살아 있는 이들의 땅에서 걸으리라.

○ “나 참으로 비참하구나.” 되뇌면서도 나는 믿었네. 주님께 성실한 이들의 죽음이 주님 눈에는 참으로 소중한네. ◎

○ 아, 주님, 저는 당신의 종. 저는 당신의 종, 당신 여종의 아들. 당신이 제 사슬을 풀어 주셨나이다. 당신께 감사 제물 바치며 주님 이름 부르나이다. ◎

○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주님께 나의 서원 채우리라. 주님의 집 앞뜰에서, 예루살렘아, 네 한가운 데에서. ◎

제 2 독서 :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8,31-34

<하느님께서서는 당신의 친아드님마저 아끼지 않으십니다.>

복음환호송 : ◎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 빛나는 구름 속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복음 :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9,2-10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고통스러운 예수님을 우리가 도울 수 있습니다

오늘 복음은 새겨 읽을수록 다양한 의미를 찾게 됩니다. 이럴 때 오히려 강론준비가 힘들어지는데요. 어느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 게 나올지, 결정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늘의 변모산 사건을 그날 직접 목격했던 제자인 요한은 이 일에 관해서 침묵하는데, 직접 체험하지 못했던 타 복음사가들이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것이 흥미로웠습니다. 어쩌면 주님께서는 그날 그 자리에서 당신의 영광된 모습을 목격하지 못했던 제자들에게 이 기록을 남기게 하심으로써 ‘보지 않고 믿는 자’의 축복을 깨닫도록 배려하신 것이라 짚어지는 겁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데에는 굳이 특별한 기적체험이 없어도 무방하다는 걸, 알려주신 것이라 싶은 겁니다. 그날 그 자리에서 주님의 변모된 모습을 직접 뵈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굳게 믿고 증언했던 제자들처럼 우리도 얼마든지, 주님을 증거하고 선포할 수 있다는 걸 넌지시 깨우쳐주시는 것만 같은 겁니다. 물론 믿음의 대선배이며 주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갈바리아의 고통을 외면한 채, 영광만을 추앙하는 모습을 살피는 것도 강론으로 안성맞춤이라 생각되는데요. 극기와 희생을 통해서 이르는 영광을 이해하지 못한 채, 하느님께서 가져오신 영광만을 공짜로 누리려는 우리의 속내를 살피도록 할 테니 말입니다.

때문에 고민하며 내용을 선택했습니다. 그날 예수님 곁에서 이야기를 나누었던 두 인물의 삶이 제 마음에 크게 다가왔던 까닭입니다. 우선 세 분 모두가, 이 땅에 무덤이 없다는 사실이 떠올라, 땅에 살았으나 죽은 흔적을 땅에 남기지 않으신 세 분의 공통점이 마음을 후뽀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그날 눈부시게 변화되신 예수님과 함께 자리했던 두 분, 바로 모세와 엘리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기구한 운명을 살아냈다는 사실에 집중하여 우리 믿음을 단단히 하도록 권하고 싶은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승천 이야기를 모르시는 분은 없으실 테지요. 수백 명의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늘로 오르셨다는 건 너무나 유명한 일화이니깐요. 그러니 예수님의 무덤이 땅에 있을 턱이 없는 건 당연지사입니다. 한편 엘리야 예언자가 하늘에서 내려온 불 병거에 실려서 감

쪽같이 하늘로 올라갔다는 사실은 엘리야 예언자의 증언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모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모세를 땅에서 무덤을 찾을 수 없는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으니깐요. “모압 땅 벳 프호르 맞은쪽 골짜기에 묻힌”(신명 34,6) 모세의 무덤을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기록에서 우리는 모세의 무덤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도 긴가민가 하는 사람이 많았던 까닭일까요? 주님의 제자였던 유다의 증언이 더 보태집니다. 유다서에 모세의 주검을 놓고 대천사 미카엘과 사탄이 다투었다는 기록에서 모세의 육신이 온전히 하늘로 ‘들림’ 받아 무덤이 없다는 걸 추리하게 하는 귀뜸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감히 짐작해 봅니다. 그날 하느님께서 굳이 모세와 엘리야를 선택하시어 예수님과 함께 하도록 한 이유가 무엇일지? 그날 하느님께서 모세와 엘리야를 보내시며 신신당부를 하시지는 않았을지? 너무나 고통스럽게 끔찍한 죽음을 맞이할 당신의 외아들을 위해서, 힘을 주고 격려해 줄 것을 청하고 또 청하며 눈시울이 붉어지시진 않았을지?…… 생각에 생각이 꼬리를 뒹니다. 당신과 얼굴을 마주 보며 얘기를 나누었던 특별한 모세의 삶도, 죽음을 맛보지 않도록 불 병거를 내려 보내실 만큼 귀하고 귀했던 엘리야의 삶이 얼마나 엄청난 고난의 연속이었던지를 기억하라는 의미라 짚어집니다.

사실 세상에서 그분들만큼 기구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다시 또 없을 듯합니다. 하느님의 뜻을 위해서 갖은 역경을 곳곳이 살아냈던 모세,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을 되돌리기 위해서 자신의 온 것을 걸고 투쟁했던 엘리야……. 그럼에도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비천해지기를 마다치 않고 마침내 자신의 목숨을 바치는 아들의 삶에는 결코 미치지 못합니다. 우리 역시 어떤 상황에도 불만할 수 없다는 걸, 억울하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믿음조차 오락가락 번덕을 부리는 우리 삶이 너무 부끄러워집니다. (중략) 가톨릭신문/ 말씀 안에서 /말씀묵상

장재봉 신부(부산교구 선교사목국장)



희망을 안고 매일 같이 주님께 다가가는 삶

“세례를 받으시니 무엇이 좋으십니까?” “글쎄요. 크게 달라진 것은 없는데 주일마다 성당에 가서 미사를 드리는 것이 일상의 즐거움이 되었어요. 그리고 내가 기대고 기도할 대상이 생겼다는 것이 놀랍고요.” “보통 사람들은 미사가 딱딱해서 어렵다고 하는데 미사 때 강론은 재미있으세요?” “미사 때 신부님께서 하시는 강론 말씀이 매번 같은 이야기에요. 마치 어렸을 때 초등학교 선생님 말씀 같아요.” “재미는 없으시겠네요?” “아니요. 결론이 뻘한 그 말씀이 좋아요.

매번 같은 말씀인데도 들을 때마다 그게 이상하게 좋고 마음이 끌려요. 아마 이런 것이 믿음의 은총이겠죠.”

지난달 세상을 떠난 가야금의 명인 황병기 프란치스코선생님과 나눈 대화였습니다. 황 선생님 부부가 세례를 받고 난 후 부인 한말숙 헬레나 여사가 말했다고 합니다.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죽음 후에 대해 너무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믿어보자, 따라오라’고 해요. 우린 지금도 참 사랑하거든요. 저승이 있다면 죽은 후에도 만나자 싶어서 세례까지 받게 됐네요.”

사람에게 가장 슬픈 일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희망이 없는 삶일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희망을 잃지 않는다면 견딜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

한만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갑자기 아름답고 황홀한 모습으로 변하였고,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앞에 두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희망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경험한 아름다움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의 모습을 앞당겨 체험한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본 것은 천국의 모습이었고, 부활의 모습이었습니다. 따라서 세상 어떠한 고통과 어려움도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또한 주님의 거룩한 변모는 우리가 닮아야 할 신앙의 과제입니다. 겉과 얼굴만 바뀌는 것이 변모가 아니고, 속과 마음이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도 세상 질서를 버리고, 신앙의 질서 속에서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매일 변화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사실 주님께서 돌아가신 십자가에 최고의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부활도 없고, 죽음 없이는 생명도 없고, 고통 없이는 영광도 없습니다.

오늘 복음은 모든 진실하고 값진 행복은 그 이전에 먼저 십자가의 고통과 자기를 버리는 희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희망을 버릴 수 없습니다. 내 삶의 자리, 내가 머무는 곳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르셨던 높은 산이 되어야 하고, 내 모습이 눈부시게 빛이 나와야 합니다. 물론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비록 좁고 험한 길이지만 부활의 순간까지 주님께 나가는 것을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과 바꿀만한 가치 없이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허영엽 마티아 신부 | 서울대교구 홍보국장



교리상식

성가가 두 배의 기도라고요?

“온 교회의 음악 전통은 다른 예술 표현들 가운데에서 매우 뛰어난, 그 가치를 이루 다 헤아릴 수 없는 보고다. 그것은 특히 말씀이 결부된 거룩한 노래로서 성대한 전례의 필수 불가결한 부분을 이루고 있다.”(가톨릭교회 교리서, 1156항) 성가는 성가대만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전례에 참여하는 모든 회중이 함께 한마음으로 하느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글 「교회상식 속풀이」 | 바오로딸 발행